

새빛캠,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참가

- ▶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 소개 및 중단기적 미래계획 공유
- ▶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해 혁신적인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

[2023-11-29] 새빛캠이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 참가해 선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인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새빛캠(107600, 대표이사 박민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주요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 제품을 전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장으로, 100개 기업과 기관 200 부스 이상 참가한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 ▲기술·사업화 컨설팅, ▲정책 소개 및 정부 포상, ▲컨퍼런스·포럼, ▲신사업 모델 발표, ▲체험형 이벤트 등이 운영된다.

새빛캠은 이번 행사에서 모빌리티 순환경제 존에 부스를 설치해, 과열되어가는 이차전지 재활용 섹터의 선도자로서 자사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을 소개하고, 중단기적 미래계획을 공유한다. 또한, 본 행사를 통해 신규 기획 아이템 및 탄산리튬과 같은 신규 제품에 대한 신규거래선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참가는 새빛캠이 순환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